

## 출제 개요

### 민족주의의 재부활 속에서 ‘민족주의와 글로벌주의(또는 보편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주제로 한 종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평가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인문체능계열 문제는 민족주의의 재부활 속에서 ‘민족주의와 글로벌주의(또는 보편주의)’라는 주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분석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했다.

이를 위해 각기 다른 내용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구분하고, 민족주의와 글로벌주의(보편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 현행 고교 교육과정에 민족주의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등의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프랑스 극우 정당의 부상은 글로벌주의에 반발한 민족주의의 재부활을 보여주는 최근의 중요한 사건들이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군함도 사건, 박열 열사의 일대기에 대한 재조명 등은 민족주의, 제국주의, 글로벌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감수성에 불을 지폈다. 현재 국내외적 상황은 민족주의와 글로벌주의(보편주의)의 역동적 관계를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는 인문학적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에 등장하는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내외 안팎에서 논의되는 민족주의 문제는 학생들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주제이다.

<문제 I>은 두 제시문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를 파악한 후, 제시문 간의 주요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출제됐다. 즉, 제시문 [가]와 [나]는 민족의 구분이 본질적으로 인위적이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하지만 이 두 제시문의 차이점은 제시문 [가]는 벨기에인들이 르완다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두 민족을 분열시켰고 제시문 [나]는 중국이 소수민족을 통합시켜 국가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민족을 식별했다는 점이다.

<문제 II>는 민족주의가 본질적이고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역사적,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적 정체성인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리 전개에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에 나타난 민족주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각각의 제시문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바]는 한국 민족주의의 원형을 ‘백의’와 ‘고구려(발해)’로 형상화한 시이다. 이 시는 역사 속에 면면히 흘러내려온 통일된 집단적 정체성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옹호한다. 제시문 [다]는 민족주의 운동가 박열과 그를 도운 일본인들의 활약을 통해 민족을 넘어 보편적 이성과 코스모폴리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제시문 [바]에 상반된다. 제시문 [라]는 남북한에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의 논리를 설명하고 이것이 근대적 합리주의, 이성주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제시문 [바]의 민족주의를 부정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마]는 민족 또는 국가라는 정체성이 박물관, 고고학, 지리학과 같은 역사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통해 만들어짐을 보여준다. 이는 민족주의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본질적이고 회복해야만 하는 고유한 속성이라고 주장하는 제시문 [바]와 상반된다.

**[제시문 출처]**

[가] 밥 해리스 지음, 이종인 옮김 (2014), <25달러로 희망파트너가 되다>, 세종서적, p. 208-209.

[나] 정지호(2017), <키워드로 읽는 중국의 역사>, 홍문각, p. 435-436.

[다] 안병우 외(2013),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p. 212.

[라] 최장집(2017), '한국민족주의의 특성,' 최상용 편 <민족주의, 평화, 중용>, 까치글방, p. 20.

[마]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윤형숙 옮김(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pp. 229-237.

[바] 도종환(1985), '이 나라 흰옷,' <고두미 마을에서>, 창작과비평사, pp. 18-19.

## 예시답안(인문·체능계)

### 논제 I

제시문 [가]와 [나]는 민족의 구분이 본질적으로 인위적이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제시문 [가]는 르완다의 주요 민족인 후투족과 투치족에 대한 구분이 역사적으로 볼 때 허구에 불과하며 벨기에 식민정책에 따라 급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같은 언어와 종교를 가졌고 유전적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가짜 과학에 의해 후투와 투치로 구분된 후 민족성이 표시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시문 [나]는 중국에 거주하는 55개 소수민족에 대한 구분이 중국정부의 민족 식별 작업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회족과 한족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외모의 차이가 나지 않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구분되었고, 먀오족의 경우는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공동체 의식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위 제시문들은 민족 구분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에서 벨기에인들은 르완다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두 민족을 분열시키고 투치족을 이용해 후투족을 차별한다. 이로 인해 생겨난 민족 간 적대의식이 훗날 르완다 대학살의 원인이 되었다. 반면 [나]에서 중국은 대륙에 분포하는 소수민족을 통합시켜 국가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민족을 식별하고 있다. (636자)

## 논제 II

제시문 [바]는 한국 민족주의의 원형을 ‘백의’와 ‘고구려(발해)’로 형상화한 시이다. 제시문 [바]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위로부터의 이데올로기라기보다 아래로부터의 한국 민족의 삶 속에서 체화된 것으로 한국인의 의식주를 통해 수천 년간 이어온 이념이다. 제시문 [바]는 역사 속에 면면히 흘러내려온 통일된 집단적 정체성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옹호한다. 또한 제시문 [바]는 민족이 유래한 본래의 장소 곧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곳’을 상징함으로 민족의 기원에 관한 본질주의적 시각을 드러낸다.

제시문 [다]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항일운동가 박열을 도운 가네코 후미코와 후세 다츠지의 활약을 보여준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함으로써 보편적 이성과 코스모폴리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제시문 [다]는 넓은 의미에서 민족주의와 폐단과 협소함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제시문 [바]와 상반된다.

제시문 [라]는 남북한에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의 논리를 설명한다. 민족주의는 근대적 합리주의, 이성주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남북한에서의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민족주의는 남북한의 사회발전과 민주화의 지체 원인이 다른 구조적 요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로 환원함으로써 오히려 분단을 극복하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민족주의는 근대성과 민주주의와는 공존할 수 없고 후자에 의해 극복되어야 할 이념이다. 민족주의가 민족을 통합시키기는커녕 분단을 고착화시킨다는 제시문 [라]의 입장은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제시문 [바]와 대조된다.

제시문 [마]는 민족 또는 국가라는 정체성이 박물관, 고고학, 지리학과 같은 역사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통해 만들어짐을 보여준다. 식민지 원주민 또는 자국민의 민족주의는 식민시기의 제국(또는 모국)에 의해 만들어진 상상화된 것을 계승한 것이다. 제시문 [마]는 민족주의라는 이념이 다양한 역사적, 과학적 지식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민족주의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본질적이고 회복해야만 하는 고유한 속성이라고 주장하는 제시문 [바]와 상반된다. (1064자)